



파란 바다와 드넓은 하늘이 만나는 곳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글 이재수 KFPA 교육홍보팀 차장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파라다이스 그룹 산하 계열의 총 530실의 특 1급 호텔로 2007년에는 서비스에 디자인 경영을 도입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상품에 디자인적 콘텐츠를 더하는 등 항상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1981년 개업한 이래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브랜드 호텔로 사랑 받고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을 방문하여 시설팀 이종환 부장과 이상인 과장을 만나보았다.

대한민국 대표 세계리딩호텔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엄격한 암행 투숙 평가, 그리고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일정 수준 미달 시에는 회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LHW(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 멤버십은 세계리딩 호텔연맹(Luxury Alliance)으로서 그 나라, 그 도시에서 최고 수준의 호텔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자격이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 2번째로 가입하였고, 부산 유일의 정식회원으로 채택이 됨으로써 서비스와 시설 모든 면에서 세계 최상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오션스파 씨메르

씨메르(Cimer)는 Le Ciel(하늘)과 La Mer(바다)의 불어 합성어로서 하늘과 바다, 그 사이에 있는 스파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오션스파 씨메르는 온천욕을 하며 바다의 드넓은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타 스파와는 차별된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모든 기반이 되고 있는 5가지의 모티브 Art&Nature(예술과 자연), Ocean(Sea)(바다), Therapy(치유), Rest(휴양&휴식), Kid(아이)를 온천에 접목하여 호텔의 문화와 가치를 제공하여,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가치가 묻어나는 High-end Life Style SPA 공간을 지향한다.



▲ 오션스파 씨메르2

파라다이스만의 특별한 안전시설

부산 특1급 호텔 중 유일하게 해운대 바다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발코니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시설은 서울 등 외부 지역에서 찾는 관광객들과, 비즈니스 고객들에게도 늘 선호하는 호텔로 기억됨은 물론,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공간으로 인명안전에서도 장점을 지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실제 일본인 투숙객이 유리창이 깨져 객실 밖으로 떨어졌지만 발코니 시설 덕분에 아찔한 순간을 피하고, 감사 메일을 보낸 일화가 있다고 하니 정말 안전에 특별한 시설이라 할 것이다.



▲ 객실과 발코니

체계적인 고객 안전관리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객실 및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특성 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을 마련하고, 4개 분대 11개반 270명의 자위 소방대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고객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KFFPA의 화재안전점검 후 권장사항도 즉시 반영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2013년 9월 “KFFPA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방재실

이렇듯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데에는 이상인 시설 과장의 역할도 한 몫 단단히 한다. 호텔 개업 전인 1986년에 입사하여 28년 동안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안전관리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원들 안전교육도 직접 실시하고, 고객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에도 늘 적극적이다.



▲ 사내소방교육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취약한 지역상황에 대비하여 다른 호텔보다 앞서 수벽 및 모래주머니를 준비한 모습에서 다시 한 번 꼼꼼한 안전관리를 느낄 수 있었다.

끊임없는 변화와 창의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호텔’ 그 이상의 휴양공간을 꿈꾸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이 앞으로도 세제리딩호텔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길 기대하며 탐방을 마쳤다. ☺



▲ 유관기관 합동훈련